

박여범의 소소한 일상

준비(準備)

초등학교 시절까지의 '기억'은 거의 없다. '기억'이 없는 것인지는 모르겠다. 어는 학교, 마을 친구, 선후배, 농사일이 전부다.

어떻게 학교에 다녔는지? 학습은 어땠는지?에 대한 기억이 허약하다. 운동회도, 등하교했던 기억도, 학교 건물 배치도, 이상하리만큼 기억이 없다.

단지, 학교에 대한 기억보다는 손과 몸에 흠이 따르지 않을 정도로 마을에서 자연과 더불어 이리저리 천방지축으로 나뉘던 기억이 우선이다.



박여범

음북중학교·시인 문학박사·문학평론가

'준비(準備)'는 '어떤 일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한 마음가짐이나 주변 조건 등을 미리 채비한다는 의미의 명사다.

그러다 보니 재수 없게도 시험 전날까지 드라마나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나왔다. 그리고 시험 당일 아이들은 준비에 열중일 때, 나는 여제 본 드라마나 스포츠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그런 나는 지금도 내일 일을 미리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일상적인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나의 성격이 가져다주는 장단점은 분명하다.

반례기를 넘겨 살아오다 보니 이제 내 삶의 일부가 되었다. 습관처럼 하면 일이라 조금만 길어지면 풀이 미리 알고 일례대로 돌아가려는 움직임 보인다.

물러나는 시간을 통해 고민하고 돌아다보면 길이 보일 것이다. 그것이 바로 '준비'다.

달리거나 수영과 같은 기초 종목에서도 '준비'가 잘 된 선수는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다.

일단 가보는 것이다. 막연하게 주어진 길이니 그냥 주어진 대로 가보는 것은 너무 멍청하지 않은가?

어떤 것도 정답이 될 수 없다. 주어진 상황에 맞게 잘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자.

나를 위해서도, 상대방을 위해서도, 단체를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지구를 위해서도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기교론

헬기 이착륙 시 2차 안전사고에 주의하자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진안에는 말의 귀'라는 뜻을 가진 마이산이 있다. 두 개의 큰 바위산이 우뚝 솟아 있는 마이산은 산에 관심 없는 사람도 한번쯤 '올라가 볼까?' 하는 마음을 품게 만드는 특이한 외형을 자랑한다.

많은 사람들이 장기화 된 코로나 사태에 살내에 모일 수 없으니 이 짙통의 날씨에도 산과 계곡, 바다로 흩어져 나름대로의 여름을 내고 있다.

마이산을 비롯한 각 지역 명산들은 경치가 아름답고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 줌으로써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지만, 때로는 등산객의 부주의와 체력저하, 등산로 방향 상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예기치 않은 사

고 발생한다. 등산객이 부상과 체력저하가 심하여 더 이상 하산할 수 없는 경우, 119구조요청으로 인해 소방헬기로 이송하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된다.

또는 패스감을 통해 각종 사고로 삼정지환자나 출혈이 심한 응급환자 발생 시 헬기로 이송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와 같이 산악사고 현장이나 생활주변 가까운 장소에서 헬기 구조 상황을 목격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먼저, 산에서 헬기 구조상황이 발생하여 헬기가 산등성이에 가까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최대한 거리를 두고 다가가지 않는 것이 좋다.

구조헬기를 커다란 선공기처럼 생각해서 접근하다 엄청난 바람에 날아온 나뭇가지나 돌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날카로운 파편이 간혹 눈이나 얼굴을 향해 날아가 다치는 경우도 있으나, 119산악구조헬기 이착륙 시에는 가능한 멀리 떨어져서 바람이



전경정

진안소방서 헌장 대응단 소방경

불어오는 방향으로 몸을 등지고 머리를 숙여야 한다.

또한 헬기구조상황에서 낮은 풍경과 호기심에 헬기 주변으로 모이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헬기 이착륙을 하기에 적절한 장소 중에 하나인 운동장에 호기심 가득한 아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까지 헬기 주변으로 모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저 날카로운 날을 가진 헬기가 하늘에 떠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위험 요소이기에 헬기 운전자와 구조

대원들을 포함하여 주변인들 모두에게 아주 작은 방심도 허락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헬기 프로펠러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소음은 아이들의 청각에 강한 충격을 주어 이명 및 청각 신경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 또 이착륙 시 일어나는 강한 모래폭풍은 아이들의 눈을 포함한 인면부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

헬기구조현장에서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는 1차적으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구조구급 대원들과 경찰들이 위험지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들이 책임지고 행동해야 한다.

사고는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명심하고, 외부활동 시 체력관리와 장비점검 등 준비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설

완주 어르신 진달래 학교

완주군청 가족문화교육원에서 지난 6월 색다른 졸업식이 있었다. 바로 '초등 학력인정 진달래 학교 졸업식'이었다.

졸업생들은 으뜸상과 성실상, 우정상, 예쁜미소상 등을 받았다. 진달래학교는 '진짜, 달콤한, 내 인생 학교'라는 문장을 새겨 학교 이름이다.

진달래학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015년에 문을 열었다. 2021년 올해 4회까지 모두 80명이 졸업했다.

교육 기간은 2년이며 수업은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와 고산면 행정복지타운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받는다.

을 했다. 보충교재 등은 강사들이 직접 학생들 집을 방문해 전달했다.

이날 완주군 봉동읍 75세 김순례 할머니는 졸업생 23명 대표로 10분 동안 마이크 앞에 섰다.

어느 어르신은 '옛날에는 버스를 탈 때 앞사람 두터운 우리 이제는 골라서 타게 됐다'며 한글을 알게 되니 이제 은행도 갈 수 있게 됐다'고 환하게 웃었다.

졸업식은 <석별의 정>을 합창하며 1시간 만에 끝났다. '어디 간들 잊으리'로 두터운 우리 정, 다시 만날 그 날 위해 노래를 부르자는 대목에서는 여기 저기서 흐느낌이 울려왔다.

어르신들은 내이가 결코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평소 실천하고 있다. 어르신 학습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배움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남원형 다문화 정책

전북 남원시가 효율적인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최근 공개 채용을 통해 처음으로 다문화가족 출신 여성을 공무원으로 채용했다.

삼 사마디 씨는 앞으로 2년 동안 자치행정국 여성가족과에 배치된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추진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결혼준비교육 지도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그는 이미 한국어 능력시험 6급에 합격했다. 2019년부터 남원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 활동을 하고 있다.

남원사에서 추진하는 '남원형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가족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인구는 2020년 12월 말 기준 553가구에 2,1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남원시는 학력 등 자격 조건 미달로 단순노동, 그리고 기피업종 취업을 반복하는 결혼 이민자들에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및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교재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및 검정고시 합격자에게 교재비 및 교통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다문화가족이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이다.

남원시 다문화 정책은 일종의 지원이 될 만하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